

# 광주 장애인 체전 '편견과의 전쟁'

## 10월 개최 앞두고 편의시설 확충 등 난항...시민들 협조 절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제거 비용도 모두 광주시가 부담합니다. 또 대회 기간 끝나면 깨끗이 치워드립니다.”

광주시 장애인 체전준비팀이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5~9일)를 준비하면서 숙박업소·음식점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총 23개 종목 5천400여명의 선수단이 머물게 될 숙박업소 업주들을 설득해 휠체어 경사로 설치, 화장실·객실 문턱 제거 등 크고 작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생각보다 높았다.

대회 진행에 필요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지정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장애인체전이 잘못될 경우 ‘인권·평화’를 상징하는 광주는 도시이미지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편의시설의 무료 설치는 물론, 장애인체전이 끝난 뒤 곧바로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 업소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작, 대회 시작 이틀 전에 설치한 후 종료 후 곧바로 철거하기로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숙박업소 141곳과 음식점 63곳을 장애인 체전 지정업소로 선정했다.

한재만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6여여원을 들여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설치된 장애인용 임시 시설들은 대회가 끝나 후 모두 철거해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체전 준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굳은 편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체전준비팀에게 대회 기간 23개 종목의 치러질 체육시설을 확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작업도 지난한 과정이다.

체전 준비팀은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광주시의 모든 체육시설을 선수

들은 물론, 관람객들을 위한 최적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내 각종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시내 30여개 경기장 주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설치, 휠체어 전용 관람석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인권도시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상담서비스 지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광주시 인구의 1%인 1만4천명이 참여하는 법시민주권지원단도 29일 발족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어울림 체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에서 한 민족이 하나 되는 ‘인권 체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는 10월 열리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맞아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인근에 조성중인 파크골프 경기장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경기방식이 유사하며, 이 경기장은 대회가 끝난 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공간으로 개방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극약 문헌 통닭 먹어 '위험한 개 사냥'

## 광주 잇따라 발생...죽은 개 보신탄집 판매 가능성

최근 통닭에 제초제 등 농약으로 의심되는 극약을 문헌 후 개에게 먹여 죽게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 개(犬)장수의 짓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건은 농약에 중독된 개는 물론, 극약 문헌 통닭을 사람이 먹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강모(33)씨의 진돗개 두마리가 극약을 문헌

통닭을 먹고 죽은 채 발견됐다. 강씨 집 인근 김모(55)씨의 진돗개 두마리도 이날 새벽 마당에 던져진 통닭을 먹고 한마리는 죽고 한마리는 현재 치료중이다.

피해자들은 “아침에 개에게 밥을 주기 위해 나왔는데 개집 주위에 토한 흔적이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두 마리 모두 쓰러져 있어 바로 수의사에게 데려갔다”며 “수의사가 농약으로 추정되는 약물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새벽 트럭 소리가 나 밖을 내다봤는데 이 때문에 개장수가 죽은 개를 가져가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이웃 주민들은 8월 초 파란색 포터 트럭이 강씨의 개에 접근해 통닭을 두 차례 던져주며 먹게 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주민들은 개 장수가 처음에는 아무 이상없는 통닭을 쥐 개를 안심시킨 뒤 며칠 후 농약 문헌 통닭을 던져주는 방법을 사용, 죽은 개를 보신탄집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청은 현재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4일 죽은 개의 배설물과 먹다 남은 통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김철성기자 kps@kwangju.co.kr

# 사기 혐의 벗은 키르기스스탄 한국인 경찰

## “자원외교 도우러 왔는데... 수모만 당하고 쫓겨갈 처지”



키르기스스탄 경찰 고위간부와 기념사진을 찍은 임모(38·왼쪽)씨.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자원외교를 위해 8년 만에 밝은 고국 땅인데... 그래도 뒤늦게 ‘범죄자’라는 오해가 풀려 다행입니다.”

8년만의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사기혐의 수배자로 적발돼 조사를 받은 키르기스스탄 경찰관 임모(38·본보 22일자 6면)씨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단지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36시간동안의 경찰 수사 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석방됐다.

지난 2000년 중앙아시아의 오지 키르기스스탄 땅을 밟은 임씨는 현지 경찰관인 데다, 봉사활동으로 명망을 쌓은 이례로운 경력의 소유자로 알려졌었다. 현지 경찰청장 보좌관이자 경제부장과 고문 등을 맡고 있는 임씨는 지난 20일 내무부장관 부인과 아들, 국회의원장 부인 등 5명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키르기스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조국인 한국과 제2의 조국인 키르기스스탄의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컸다. 그러나 한국 땅을 밟는 순간 키르기스스탄에서 쌓은 명성과 능력

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광주 출신인 임씨는 지난 1999년 광주에서 H벤처회사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중 또 다른 대표가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한국을 떠난 것이 화근이 됐다. 경찰은 임씨에게 재출두를 요구했으나 임씨는 이미 한국을 떠났고, 결국 경찰은 수배자 명단에 임씨를 올렸다.

임씨는 “한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투자유치와 주한 대사관 설립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대부분의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며 “양국을 도우러 왔다가 수모만 당하고 쫓겨갈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신에 관한 소식이 키르기스스탄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신이 보좌관도 내무부장관도 곤경에 빠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참 (7591)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점 : 061) 337-0571

11번째 아이 출산-1,700만원 장려금

○전국 차차단 상다발

출생이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11번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사상 최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화제.

○24일 영암군은 최근 자신의 11번째 아이를 출산한 차모(55·영암군 미암면)씨 부부에 출산장려금 1천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첫째 출산시 50만원에서 순차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증액되다 단 첫째는 500만원, 여섯째부터는 200만원씩 추가지원하도록 제정했기 때문.

○차차 가정을 방문한 김일태 영암군수는 “출산장려 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출산율이 전남도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며 격려했다. 5대 독자인 차씨는 “늦둥이 아들이다 생각지도 못한 양육비 지원까지 받아 기분이 좋다”고 감사 인사.

/영암=박진희기자 lucky@

# ‘종교 편향 기고문’

## 여수시장 사과

오현섭 여수시장은 기독교 신문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4일 개인성명을 내고 “모든 종교가 24일 포함해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답하여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으로 비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 일조권 침해 배상액

## 시간당 집값의 1%

뒤늦게 세워진 집 앞의 고층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한다면 시간당 집값의 1%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재웅 부장판사)는 4~5층 짜리 연립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인근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4시간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남스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8월 30일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대표:성 불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임우영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임우영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임우영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임우영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임우영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박사 임우영

# 해령법률경매

T:062)225-2665 H.P:011-605-7777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건평(㎡)	최저가
전주	신원동	신원동	588/1889	214㎡	1920만
	중원동	중원동	197/647	149㎡	8020만
	신원동	신원동	254/68	24㎡	890만
	신원동	신원동	215/498	4㎡	290만
남구	신원동	신원동	588/238	14㎡	790만
	신원동	신원동	106/188	1㎡	80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북구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북구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
	신원동	신원동	201/441	2㎡	1920만